

# 경제

## 세계화 시대의 일본 경제



도쿄증권거래소  
일본 최초의 증권  
거래소이다. 1878년에  
세워져 현재에 이른다.  
©Tokyo Stock Exchange

### 고도 성장 시대

일본의 전후 경제는 제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수없이 파괴를 당하고 남은 산업 시설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일본은 1952년 점령군이 퇴각할 당시만 해도 1인당 국민 소비가 미국의 약 1/5 밖에 안 되는 후진국이었다. 그 후 20년 동안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은 8%를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첫번째 국가가 되었다. 개인의 높은 저축률과 민간 분야의 설비 투자율, 확고한 직업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력, 원활하게 공급되는 싼 석유, 혁신적인 기술 및 민간 산업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인 간섭으로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일본은

국제 통화 기금(IMF)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 추진한 자유 무역 협정에 따라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경제가 이룩한 급성장의 주요 수혜자가 되었으며, 1968년 일본의 경제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되었다.

1950년부터 1970년 사이에, 도시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비율은 34%에서 46%로 늘어나 산업 노동력도 증가하였다. 일본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1960년대의 연간 수출은 평균 18.4%씩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1973년의 오일 쇼크에 영향을 받은 몇 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경상수지가 흑자를 달성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의 높은 저축률을 기반으로 민간 분야에서 집중적인 설비 투자가 이루어져 경제 성장은 일본의 산업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 자동차공장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수작업으로 일하는 모습이다. (사진제공 : 도요타 자동차)



예전의 농업과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던 일본 경제가 중공업 산업으로 이동하였다. 철강, 조선, 기계 장치, 자동차 및 전자 장치가 산업 분야를 지배하게 되었다.

1960년 12월, 이케다 하야토 수상은 1961년부터 1970년까지 10년 동안 7.2%의 실질 국민 총생산 성장을 목표로 한 소득 2배 증가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경제 계획은 대성공이 입증된 산업 기반 확대에 목표를 둔 것으로, 실질 경제 성장률 10%를 달성하여 1968년에는 국민 총소득이 2배로 증가하였다.

## 성숙한 경제

1973년부터 1977년까지의 높은 성장률은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의 기본 경제 사회 계획(1973년 2월)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1973년 국내 거시 경제 정책으로 자금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동산과 국내 생산물 시장으로의 과도한 투자를 불러 일으켰다. 1973년 10월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에는 일본은 이미 두 자리 수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었다. 에너지 비용은 치솟았으며 엔화의 강세를 반영하지 못한 환율도 변동 금리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른 불경기로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감소하였으며 민간 분야의 투자도 감소하였다. 1974년부터 1979년까지의 경제 성장률은 10%대에서 평균 3.6%대로 추락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4.4%를 유지하였다.

1979년의 2번째 오일 쇼크는 일본의 산업 구조를 중공업 중심에서 VLSI(Very Large Scale Integration) 반도체 산업과 같은 새로운 발전 산업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였다. 1970년 후반부터 컴퓨터와 반도체, 그 외 기술 및 정보 집약 산업들이 고도 성장 시대에 참여하게 되었다.

고도 성장 시대에 발맞추어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일본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증가하는 국제 수지 흑자에 따른 무역 마찰은, 일본의 내수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경제 성장의 엔진인 내수 시장의 소비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 거품 경제

1985년의 플라자 합의에 따라 엔화의 가치는 1988년, 1971년에 비해서 3배나 오른 달러 당 120엔으로 급등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수출품 가격은 상승하였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약화되었지만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내수 시장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었다.

기업의 투자는 1988년과 1989년에 급증하였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신주 발행이 급속히 증가하여 주식회사의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되었으며, 은행들은 자금 방출구를 부동산 개발에서 찾았다. 반면, 기업들은 그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주식 시장에서의 매매를 위한 담보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지가가 2배로 상승하였고 도쿄 닛케이 주가지수는 180%가 증가하였다.

1989년 5월, 정부는 토지와 같은 자산 가치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의 금융 정책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자율의 증가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였다. 1990년대 말, 도쿄 주식 시장은 38%나 감소하여 3,000조 엔(미화 20조 700억 달러)의 가치가 사라져버렸고 지가도 투기의 절정에서 폭락하였다. 이러한 경기의 하강을 ‘거품 경제’의 ‘붕괴’라고 부른다.

## 1995년 이후의 경제

거품 경제의 붕괴는 1990년대 후반을 지나 2000년대에까지도 이어진다. 1995년 1월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인한 복구 작업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수요와 엔화의 부분적인 가치 하락으로 인해, 1995년과 1996년에는 경제가 일시적인 개선 전망을

보이기도하였다. 그러나 1997년 소비 세율이 증가하고 정부 투자 활동이 감소하면서 주요 금융 기관의 파산 등 복잡한 요인으로 빠르게 경기가 침체, 악화되었다. 거액의 악성 채무를 떠안은 금융 기관들은 대출 정책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공장과 설비 투자를 축소하도록 압박하였다. 아시아의 경제 위기로 수출이 감소하여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수익이 감소하였다. 고용 급여와 임금도 감소하고 그로 인해 소비도 감소하였다. 1998년의 일본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1998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한 공공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600조 엔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추가로 금융 기관의 감소된 대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응급 조치로 400조 엔을 배분하였다. 1999년 국가 재정 예산은 공공 사업비가 급증하였으며, 새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세액 공제 혜택과 같은 세금 대책 조치가 취해졌다. 1999년 2월 초 일본 은행은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하여 0% 단기 금리 정책을 실행하였으며 3월 정부는 75조 엔의 공공 자금을 주요 15개 은행에 투입하였다.

이러한 정책들과 아시아에서의 일본 제품의 수요 증가로 인해 1999년 말과 2000년에는 주가가 상승하고, 몇몇 산업에서 세입 증가와 같은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1년의 경제는 국내 수요가 침체되고 디플레이션 및 일본 은행들이 안고 있는 악성 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 등의 국내 문제와 미국 경제의 쇠퇴로 인한 일본의 수출 감소 등 국제적인요인으로 다시 침체하게 되었다. 완전실업률은, 1990년에 2.1%였던 실업률이 2016년에는 3.0%로 상승했다.

경제는 2002년 초에 바닥을 치고, 느리지만 지속적인 회복기로 접어들어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다. 10년 이상을 방황한 끝에 거품 경제의 붕괴로 인한 부정적인 후유증들이 전반에 걸쳐 극복되었다. 주요 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은 2002년에 8% 이상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2%까지 감소하였으며, 은행의 대출 능력도 회복되어 은행이 다시 재정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일본 사회의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3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의 약 25.1%. 2055년에는 약 4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을 개선하고 여성과 65세 이상의 고용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연금 수급자의 증가에 비례하여 생산 연령층의 부담이 증가하는 세대 간의 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금과 그 외 사회 복지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아키하바라 전기상가의 점두(도쿄)**

컴퓨터에서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아키하바라에서는 대부분의 전기제품을 살 수 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종식시키고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2012년 당시 2차 아베 내각은 이른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을 실행하였다.

아베노믹스는 “세 개의 화살”로 일컬어지는 세 가지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첫 번째 화살 “통화 팽창 정책”은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 현금 유통량을 증가시켜 디플레이션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화살 “유연한 재정 정책”은 정부가 약 10조 엔의 예산을 사용하여 경제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는 시책이다. 세 번째 화살은 “민간 부문 투자에 박차를 가하는 성장 전략”으로서, 그 목표는 규제 철폐를 통해 민간 회사와 개인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실질 GDP가 성장하였으며, 동시에 실업자 수와 파산 기업 수가 감소했다.



**마루노우치(도쿄) 교차점**  
마루노우치는 도쿄의 유명한 오피스이다.

일본 사회의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6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의 약 27.3%이지만 2060년에는 약 39.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을 개선하고 여성과 65세 이상의 고용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연금 수급자의 증가에 비례하여 생산 연령층의 부담이 증가하는 세대 간의 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금과 그 외 사회 복지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 아시아와의 관계 강화

생산품에 대한 일본 수입 비율이 1980년대 중반 이래로 크게 증가하여 1990년대는 50%를, 1990년대에는 60%를 넘어섰다. 이 사실은 일본 산업의 공동화에 대한 위기감을 자극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무역 마찰이 증가하고 엔화 가치가 급상승하여 전자 제품과 자동차 등 주요 수출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다. TV와 VCR, 냉장고와 같은 전자 제품의 생산 조립 공장들은 대부분이 질 높고 임금이 싼 중국이나 대만, 말레이시아 등의 아시아에 위치한다. 이렇게 생산된 수입 물품의 시장 점유율이 이제는 국내 생산 물품의 점유율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제품 수입 급증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일본이 수입한 양은 170%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의 대 중국 수출은 235%나 증가하였다.

2015년, 일본의 해외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21.2%로 증가한 반면에 미국의 비중은 15.1%로 감소했다. 디지털 가전과 자동차 관련 수출이 견고하여, 2007년부터 대 중국 수출은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일본의 대중 무역은 1988년 이후, 20년 이상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홍콩으로 수출한 대부분이 다시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실태를 고려하면, 일중 무역 수출 베이스는 일본측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무역 적자는 계속 감소해 왔다.

중국과 그 외 아시아와의 관계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한 이유는, 제조업의 국제화 현상의 일환인 국제 분업의 진전에 기인한 것이다. 일본의 회사들은 중국에 직접 투자하여 건설한 생산 설비에 주요 상품(기계)과 중간재(부품 등)를 수출하고 완성된 상품을 다시 일본으로 수입한다. 현재는, 지식과 기술 집약형 생산 제조 공정을 전문화한 일본과 노동 집약형 생산 제조 공정의 중국 사이에 노동력의 수직적 분업이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과 그 외 개발 도상국들이 기술력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일본의 제조업은 지식 및 기술 집약형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 일본 방문자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여행자의 국내 소비가 증가해 왔다. 외국인 일본 방문자가 숙박비와 식비로 소비한 금액에서 일본인이 해외에서 소비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여행 수지는 2015년에 균형을 이룬 후 1962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방문자는 인접한 아시아 국가 출신이다. 중국, 대한민국, 대만 및 홍콩 출신의 일본 방문자 수는 2015년에 모든 외국인 방문자 수의 70%를 조금 넘게 차지했으며, 이 국가들과 지역이 차지한 국내 여행자 소비의 비중은 2015년에 70%를 초과했다.



도쿄 미나토 구에 위치한 도쿄 타워는 외국인 여행자에게 인기가 있다.